

## 원조정보 국제표준의 형성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표준의 역할1)

박정렬 ■ 런던정치경제대학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과 표준 연구의 교차점에서, '원조정보(aid information) 국제표준의 형성과정을 분석, 그 역할과 과제를 논의한다. 2000년대 들어 네 차례 열린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을 중심으로 원조정보공개 표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본고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표준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 국제개발협력에서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준이 출현, 확산, 도입되는 과정을 기술의 사회적 형성관점과 제도주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이다. 특히 2015년 시작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준비 및 이행 과정을 거치며, IATI 표준이 어떻게 SDGs를 반영하고 조정되어 왔는지도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표준화 과정의 정치형성적 본질을 재확인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SDGs 이행을 위한 원조정보공개 국제표준의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 1) 기술적 접근법에 비해 사회정치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 2)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원국의 관점이 소외되었다는 점을 과제로 지적하며,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본고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원조정보, 표준, 국제개발협력,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1) 본 연구는 2018년 한국표준협회 '제 6회 표준정책 마일스톤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다.

## I. 서론

공적개발원조가 시작된 이래, 공여국 원조정보 공유 및 표준화 작업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주도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73 설립된 Creditor Reporting Systems(CRS)은 지금까지 OECD DAC 선진공여국의 원조정보 공유를 위한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 (HLFs, High Level Forums on Aid Effectiveness)’은 원조정보표준(aid information standard)의 확산이 각 공여국의 원조정책 수립과 평가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논의해왔다. 특히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2005)과 ‘아크라행동계획 (Accra Action Agenda)’ (2008)을 통해 원조투명성을 위한 원조정보표준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환기했다. 개발협력 실무에 있어서도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Survey on Monitoring Paris Declaration)’ (OECD 2006, 2008a, 2011)을 거치며 CRS가 원조정보표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국제개발협력 환경이 변화하면서 CRS가 가지고 있는 실무적, 이론적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다. 2011년 부산총회(Busan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가 채택한 ‘부산파트너십 (2011)’에서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표준’은 CRS의 정량적 접근법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외에도 다양한 개발협력 기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표준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준비 과정에서도,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되고 (open), 세분화 된 (sub-national level) 개발협력데이터 및 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표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SDG17에 명시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발효과성 (development effectiveness) 증대의 목적에 있어서도 원조정보공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 영역에서 원조정보공개 표준이 어떻게 출현하고 형성되어 왔는지, 특히 2015년 SDGs 수립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정,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진하다. 원조정보공개 표준이 갖는 시사점과 과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소홀히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후반 원조데이터공개 국제표준으로서 새롭게 대두한 IATI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에서 표준이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출현하고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기술의 사회적 형성(social shaping)이라는 관점과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이다. 특히, SDGs의 논의 및 이행 과정에 있어 IATI 표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 조정되어왔는지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장에서는 표준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원조기관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식과 규모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메타데이터(metadata)로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본고의 이론적 분석틀인 기술의 사회적 형성 관점과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같은 분석틀의 유용성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네 번째 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자료의 범위에 대해 기술한다. 질적 사례연구의 의미와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기반으로 다섯 번째 장에서는 사례분석을 진행하며, 끝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함의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 II. 이론적 논의

본 장에서는 표준 및 표준화와 개발협력분야의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표준과 개발협력분야의 접점에 있는 선행연구에 대해 이론적, 정책적, 방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표준의 기능적, 경제적 관점에 대한 논의를 넘어 다양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다룬 접근방식에 주목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맥락에서의 표준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국제개발에 있어 표준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또한, 기존의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적 접근의 표준 연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국제개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ICTD) 연구 분야와의 접점을 찾아본다.

## 1. 표준의 사회학적 연구

표준에 관한 실증적, 개념적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적 분석들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표준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표준화 과정에서 국제무역 및 국가경제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경제적, 계량적 접근방식의 연구 (Blind 2011; Blind and Jungmittag 2005; Theodosiou and Leonidou 2003), 기술발전 및 표준에 대한 제도 및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법률적 관점 (Bekkers et al. 2002; Pistor 2002), 표준 경쟁 및 표준 확산에 대한 정보시스템적 접근방식 (Gao 2007; Weitzel et al. 2006) 등 표준에 대한 학제적 논의는 실로 다양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준을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이론적 연구나, 표준화 과정에 대한 정치경제적 역동성에 대한 논의 등은 주로 사회학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Singer는 ‘표준의 사회학’을 주창하며 사회적 제도와 표준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Singer 1996), Timmermans와 Epstein은 표준의 형성과 표준화에 대한 저항 등 표준의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Timmermans and Epstein 2010). Brunsson 등은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표준화과정에서 행위자 간의 이해충돌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Brunsson et al. 2012). 조직이론의 발달은 표준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직이론의 주요 분석적 단위인 규칙, 규범(norms), 정당성(legitimacy), 동형화(isomorphism) 등의 개념은 표준의 사회적 및 표준화 과정의 복잡성에 대한 분석의 틀로 자주 적용되어왔다. 이러한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표준과 기술진보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거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감소를 통한 표준화 과정의 역할을 분석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과는 다르게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은 채택하여 왔다. 특히 표준을 비정치적으로 개념화하며 그것의 확산과 효과에 관해 주로 연구한 결정론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해 오고 있다 (Botzem and Dobusch 2012; Timmermans and Epstein 2010).

## 2. 국제개발협력과 표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원조정보공개 표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제기구의 정책분석 보고서 등의 형태로 논의된 바가 있으나 사례연구를 포함한 학문적 접

근은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IATI 2013;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007). 원조정보공개 표준과 관련한 연구의 범위를 넘어 국제개발분야와 관련 있는 다양한 표준 문제로 선행연구의 범위를 넓히면 보다 다양한 연구들을 접할 수 있다. 이 중,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발전과 표준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보건 (Braa et al. 2007), 환경 (Brandi 2017), 무역 (주한나와 이희진, 2012; Blind and Jungmittag, 2005), 정보통신 (Ernst et al. 2014) 등과 같이 개별분야에서 표준의 도입 및 기술추격의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주한나 (2017) 외는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63개의 선행연구 분석하였는데 선진국의 사례에서 흔히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으로서의 표준화라는 점보다 개발도상국 사례에서는 표준에 대한 도입과 적용이 논의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Zoo et al. 2017). 이는 기술 도입을 바탕으로 추격(catch-up)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의 주류적인 시각이 표준 연구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Davis 1985).

최근 표준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보급에 따른 영향을 논의한 연구들이 눈에 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전 세계적인 보급은 관련 연구 분야에 있어 기술결정론(technical determinism)적 접근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빠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그것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들과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앞서 언급한 주한나 (2017) 외의 논문에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Zoo et al. 2017).

이 분야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기술수용모델과 같은 기술결정론적 시각에 바탕을 둔 계량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분야의 관점에서 기술과 표준에 내재된 사회성 및 정치성에 대해 주목한 복합적인 분석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은 의외성(contingency)이 큰 개발도상국의 맥락의 연구에서 널리 반영되고 있다. 이는 독립적인 학제간 연구 분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개발(ICTD) 분야에서도 확인되는데 ICTD와 표준연구의 교차점에 있는 연구들은 살펴보면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논점에 주목할 수 있다

(Avgerou 2001; Heeks 2010).

우선, 사회기술적(socio-technical) 관점으로 기술과 표준에 대해 접근한 선행연구에서는 문맥(context)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석틀이 적용되어왔다 (Avgerou 2001). Braa 등은 행동연구를 통해 보건정보시스템(health information systems)의 사용과정 및 정보시스템에 있어 표준의 역할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들어 연구하였다 (Braa and Hedberg 2001). 이희진(2015) 등은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 theory)을 바탕으로 초기 한국 모바일뱅킹 형성과정에서 표준화의 사회기술적 복잡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Lee et al. 2015), Gao는 이러한 문맥특수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분석틀을 적용하여 중국의 WLAN 표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Gao 2007).

두 번째는 연구의 분석틀을 국제사회로 확장한 경우이다.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국제표준의 출현과 확산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표준은 그 출현과 확산 과정에 있어 국가 간 문제의 성격을 띄며, 이로 인해 국제표준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Abbott and Snidal 2001). 김상배 (2002)는 1980년대 미, 일간 컴퓨터 아키텍처를 놓고 벌인 정보산업의 표준경쟁이 경제적, 산업적 관점을 넘어선 기술비전의 경쟁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체제경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Botzen과 Dobusch는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표준화의 과정을 국내외적 정당성의 획득과 연결 지어 분석한다 (Botzem and Dobusch 2012). 국제화된 표준과 그것에 바탕을 둔 데이터 공유, 지표 적용 등을 통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개별국가 조직들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표준의 기술적, 관리적 역할을 넘어선다. 특히 표준 형성과정에서의 행위자들 간의 정치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한 표준화의 과정에서 ‘표준가(standardizer)’로서 국제기구, 주요 선진공여국의 역할은 주요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을 통한 정보 공개, 모니터링, 평가, 이에 대한 다양한 표준의 출현 및 경쟁에 대한 연구가 개발협력분야에 주는 함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표준 연구의 접점에서, 첫째, 표준과 정보통신기술의 밀접한 내재적 연관성, 둘째, 원조 정보공개 표준의 국제적 성격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장

에서는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로, 기술에 대한 사회형성적 관점과, 표준 확산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III.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이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할 두 가지 이론적 관점, 기술의 사회적 형성 관점과 제도적 동형화에 대해 검토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두 이론의 접점에 대해 살펴봄과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표준의 역할과 그 형성과정, 특히 원조데이터공개 표준화에 대한 연구의 분석틀로서 그 유용성 및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기술과 표준의 사회적 형성

기술변화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주로 과학기술사회학(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사회기술적 관점(socio-technical perspective)은 사회변동에 대한 기술의 결정론적인 시각을 비판하며 발전되어 왔다. 이는 기술의 확산, 표준화 등의 과정에서 정치, 사회, 제도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왔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 분야의 연구에 있어 사회기술적 접근이 두드러진다(Avgerou 2000; Orlikowski 1992). 일련의 연구들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표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히 정보기술이 가진 범 세계성에 주목하며 글로벌 장(field)에서 기술과 국제사회의 관계에 대해 개념화하는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Avgerou 2002; Walsham 2008). 사회기술적 관점은 여러 가지 세부적 이론적 논의로 발전되어 왔는데, 국가별, 사회별 문맥을 중시하는 사회적배태(social-embeddeness) 이론(Avgerou 2002; Scott 2007)과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조직 및 사회 안에서 기술이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기술의 이행이론(technology enactment)(Fountain 2001),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기술의 사회적형성(social shaping of technology) 이론(MacKenzie & Wajcman 1999) 등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사회정치적 속성에 주목하며 기술의 진화 및 변동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온 기술의 사회적 형성 관점으로 표준 및 표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학문적 기원으로 사회적 형성 관점 역시 기술결정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과학기술사회학 연구자들은 기술에 대한 주류적 접근방식, 즉 기술의 본성은 비정치적이며, 기술변화는 예측 가능하고 필연적으로 사회적 변화의 한 동인이 된다는 대전제를 비판한다 (Williams & Edge, 1996). 결정론적 접근은 독립변수로서의 기술 변화와, 종속변수로서의 사회적 영향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이에 반해, 사회기술적 관점에서는 기술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기술의 정치성, 복잡성에 주목해왔다. 과학기술은 내재적 논리(inner logic)를 반드시 따르는 않는다. 오히려 그 자체를 사회적 생산물로 볼 수 있기에 기술의 구성 및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기술의 사회적 형성 관점은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에서 더 나아가, 기술의 구성 및 디자인의 종료(closure) 이후 단계 역시 주목한다. 특히 기술의 구성 이후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 기술을 형성(shaping)하는 과정에 그 초점을 둔다 (MacKenzie and Wajcman 1999). 이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이 그것의 해석적 유연성(interpretive flexibility)을 기술의 ‘개발’ 및 ‘디자인’ 단계에만 제한함으로 인해, ‘사용’ 및 ‘변용’ 단계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간과한 점을 비판하며, ‘개발’ 및 ‘디자인’ 단계 이후에도 이해당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해석(reinterpretation), 재배치(reconfiguration) 되는 것에 주목한다. 특히 이는 사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주는 함의가 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술 및 표준의 개발, 사용 및 재형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행위자들에게 가능한데 이 선택들은 기술적 우월성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조직적, 정치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MacKenzie and Wajcman 1999). 이러한 요소 간의 상호작용, 그 결과로서 진행되는 기술 및 표준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것이 사회적 형성 관점의 주요 분석 초점이다.

표준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접근방식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는 그 연구가 많이 없으나,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형성 관점으로 표준의 문제에 대해 접근해 왔다. Graham(1995) 등은 컴퓨터 간 전자데이터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대한 형성과정을 연구하였는데, 관련 표준의 초



기 형성과정에서 비정형, 비공식적 메커니즘을 사용하며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의 초점이 표준의 개발에서 사용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밝힌 부분이 흥미롭다 (Graham et al. 1995). Hwang (1995)은 코드화 문자 집합 (CCS, coded character set)의 한국 표준에 대해 기술의 사회적 형성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특히 국제 CCS 표준의 진화와 더불어 미국과 유럽 CCS의 영향이라는 외부적 환경 속에 한국의 관련 표준 형성과정을 밀도 있게 분석하였다 (Hwang 1995).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 역시 표준 및 표준화가 일종의 정치사회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 본 표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들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Brunsson et al. 2012; Timmermans and Epstein 2010).

## 2 표준의 확산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기술의 사회적 형성 관점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 및 표준의 재해석, 재배치 과정에 있어 제도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이론은 표준의 연구에서도 주요한 분석틀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기술적 요인과 경제적 영향에 국한되지 않고 진행되어 온 실증적(positivist) 연구들은 표준 및 표준화의 과정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만을 다루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Avgerou 2000; Egyedi 1996). 제도주의적 접근에서 각 조직들이 표준화와 제도화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표준 및 기술이 사회적 형성과정을 통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왔다 (Garud et al. 2002).

사회 구조 안에서 행위자의 합리성과 그 선택에 대한 기능적 역할에 주목한 경제학적 제도주의의 접근방식에 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제시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여러 연구자들의 이론화 과정을 거쳐 조직이론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DiMaggio and Powell 1983; Scott 1994; Thornton and Ocasio 1999). 특히 DiMaggio와 Powell은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진 조직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우 비슷한 제도, 정책, 기술 등을 도입 및 발전시켜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정책, 표준, 기술의 확산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공하며 다양한 연구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동형화 과정 속에서 조직들은 반드시 효율성, 합리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방 및 도입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고 정치적

생존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Currie, 2012; DiMaggio and Powell, 1983). 이는 강제적(coercive), 규범적(normative), 모방적(mimetic) 동형화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첫째, 규칙(rule) 및 법규(law)로 부터 발생하는 압력,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받는 제재(sanction)의 가능성에 의해 조직은 동형화에 대한 강제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전문가 집단이 자문, 제언하는 조직의 방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적 선택이 규범(norms)으로 작용하면서 조직 간의 동형화에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불확실성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식으로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는 여타 조직의 성공사례를 모방함으로써 제도적 동형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DiMaggio and Powell, 1983).

이러한 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분석들은 정보시스템, 표준, 국제규범 등의 확산과 제도화에 대한 연구에도 널리 적용되어 왔다. Judge와 Pinsker(2010)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회계표준의 도입을 살펴봄에 이를 통해 왜 어떤 나라는 국제표준을 빠르게 도입하고 다른 나라는 국제재무보고표준(IFRS, international finance reporting standards)를 부분적 혹은 느리게 도입하거나 저항하는지 연구하였다. Benders(2006) 외는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의 사용과 확산이 표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에 ‘기술적 동형화(technical isomorphism)’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Botzem과 Dobusch(2012)는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국제 표준의 도입과 정당성의 측면에 대해 연구하였다 (Botzem and Dobusch 2012).

기술의 사회적 형성 관점과 표준의 확산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들을 적용한 본 연구는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에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조데이터공개 국제표준은, 그 본질상 데이터 공유 형식, 데이터 분류 방식 등 원조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공유를 위한 사용자 플랫폼으로서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원조데이터 국제표준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술의 요소는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Williams and Edge 1996). 둘째, 원조데이터 국제표준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와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Jørgensen et al. (2009)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과 비전이 충돌하는 분야 혹은 여전히 기술 및 표준의 사용이 재조정되고 있는 분야에서 사회 형성적 접근은 특히 큰 함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발전에 관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철학과 정치경제적 이익이 맞물려 있는

공간이다. 특히,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논의 이후 원조 투명성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실무적 논의가 다양해져 왔기에 원조정보공개 표준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로 사회 형성적 접근의 적합성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원조데이터 공개 표준은 초기 개발 및 확산의 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재조정, 형성(shaping) 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 형성적 관점에서 표준을 개념화하고 그것의 확산과 표준화에 대해 제도적동형화의 분석틀로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 적절성과 방법론적 유용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IV. 연구방법 및 자료

### 1. 질적사례연구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사회기술적 접근방식의 연구는 주로 해석주의(interpretivism) 인식론에 근거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질적단일사례연구(qualitative single embedded case study)는 표준의 영향과 표준화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Jacucci et al. 2006; Kano 2000; Lee et al. 2015).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연구환경을 조작할 수 없고, 맥락 의존적이고 특수성이 현저한 구체적 사례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Yin 2009). 특히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데이터, 표준에 대한 사회기술적 접근방식은 해석적 사례연구에 많이 적용되어 왔음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Walsham 2006).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원조데이터공개 표준에 대한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은 앞 장에서 살펴본 개념적 분석틀을 이용, 원조정보공개 표준이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출현, 제도화, 적용되는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사례로 IATI 원조정보공개 표준을 선정하였다. 선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무역, 정보통신, 보건 분야 등 여타 국제개발분야에는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상대적으로 활발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제개발협력의 거버넌스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조정보공개 국제 표준은 선행 학술연구에서 미진하게 다루어

진 측면이 있다. 둘째, 원조정보공개 표준 중 IATI 표준은 원조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IATI, 2017). IATI에 가입한 개별 기관의 원조정보 공개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해 큰 차이가 있지만, IATI에 가입한 국가, 국제기구, NGO 등의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질적 표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OECD 개발원조위원회 설립 후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CRS는 IATI 표준에 따른 원조보고의 데이터베이스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IATI 2017). IATI 표준은, 수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딘 CRS와 비교했을 때, SDGs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서 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로 인해 처음 제시된 IATI 원조정보공개 표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 발전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시사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참고하였다.

## 2 자료의 범위와 분석

자료수집은 질적사례연구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론삼각화(triangulation)를 위해 문헌조사도 이용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IATI 담당자, 공여국의 원조보고 담당자, 국제기구 종사자 등과 2017년 5월과 2018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일인당 평균 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자는 미리 준비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자유로운 답변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뷰 중 최대한 답변자의 답변 흐름에 맞게 상호작용을 하였다 (Kvale and Brinkmann 2009). 인터뷰로 얻은 자료는 익명화하여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IATI는 공공데이터(open data)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IATI 주도의 대부분의 회의, 워크숍 후의 회의록, 결의안 등 모두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웹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표준 및 IATI의 공식출판물을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IATI 연례 보고서 등의 공식출판물을 통해 IATI 본래의 취지, 목적과, 방향, 원조정보공개의 범위 및 기술적 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위의 자료들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이 반영됨으로 인한 표준의 조정 과정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하여 IATI 표준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는 IATI 기술지원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TAG)의 웹커뮤니티 역시 분석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Discuss’라고 명명된 게시판형 포럼은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sup>1)</sup>

자료의 분석은 텍스트화된 자료에 대해 서로 다른 문맥에서의 해석차를 바탕으로 주제를 도출하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의 일반 단계를 따랐다 (Fereday and Muir-Cochrane 2006). 주제분석은 일반적으로 귀납적 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자료의 수집, 특히 인터뷰를 수행하기 전,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도출된 주제나, 기존에 있는 SDGs 지표, CRS code, IATI 데이터항목 등의 카테고리들을 인터뷰 질문지를 생성하는데 연역적으로 활용 자료수집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다시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수집된 문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석되었다.

## V. 사례분석

### 1. 대안적 표준으로서 IATI 의 출현 (2007-2008)

2008년 가나에서 열린 제3차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은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채택 구체적 실천 방안의 하나로 원조정보 공개를 통한 원조효과성 확보를 제시했다.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는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자발적 노력의 일환으로 출범하였다 (OECD 2008b). 이 IATI의 핵심 요소가 바로 새로운 원조정보공개 국제표준으로 대두되고 있는 IATI 표준이다.

실제로 원조정보공개 국제표준에 대한 논의는 원조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Ghosh and Kharas 2011). 1961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원조정보에 대한 공유, 표준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며 원조의 규모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1980년대부터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OECD DAC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정의와 원조 집행에 대한 규범 수립을 주도하여 왔다. 특히,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원조정보 표준화 작업 역

---

1) <https://discuss.iatistandard.org>

시 각 공여국의 원조정책 평가를 위해 계속 논의되어 왔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원조투명성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는 가장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Ghosh and Kharas 2011; Moon and Williamson 2010). 전술하였던, CRS은 OECD DAC 선진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가장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CRS 보고 표준은 원조정보 공유 표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여국 및 국제개발 관련 기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원조 방식의 도입 및 정책실험에 따른 원조이질성(aid heterogeneity)의 증가로 인해 원조정보공개 표준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었다 (Mavrotas 2005). 특히, 전체 ODA 통계에서 DAC 공여국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CRS가 다자간 국제개발협력 정보와 신흥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의 현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Tierney et al. 2011). 이는 학계에서 ODA에 대한 재정의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Martens 2001). 여기에 국가간 회계연도와 정부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원조 표준 및 통계상의 오차,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격을 분류하는 CRS 코드의 모호성, 양적 표준지표 중심의 설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아크라행동계획(2008)’, ‘부산파트너십(2011)’을 거치며 학계와 개발협력 현장에서 원조정보공개의 범위를 다양한 행위자로 확산하고, 공개데이터 역시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Kharas 2011). 이러한 배경에서 IATI가 제시된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의 IATI의 출현은 CRS에 대한 대안적 기능으로 촉발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IATI 표준의 초기 구성과정과 기술지원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 협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IATI 표준 1.02, 1.03, 1.04으로 이어져 2014년 10월 발표된 IATI 표준 1.05의 대부분의 논의에서 기존의 CRS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도적, 문화적 고려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초기 IATI 표준의 형성과정은 대부분 기술적인 측면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IATI 표준이 출현하게 된 직접적인 동인 중 하나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IATI 창립 멤버는 영국,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GAVI, 휴렛파운데이션, 유엔개발계획(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세계은행 등으로 국제기구, 사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OECD 개발원조위원회 소속이다. IATI가 CRS에 대한 대안적 의미로 출발하였고, IATI의 비전과 선언 등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선진공여국 외의 참여를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다른 설립의 양상이다. 이것은 IATI의 출현 역시 국제개발협력의 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존의 주요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정치적, 실무적 필요에 의해 추동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선진공여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원조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국제사회에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이는 큰 틀에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권력 재분배 논의로 확대되었다 (Addison et al. 2010; OECD 2012). 이 과정에서 OECD 주요공여국과 세계은행, UNDP 등은 이른바 개발재원 확보에 있어 다양한 행위자를 통한 '부담공유'를 추진하였다 (Addison et al. 2010; Manning 2006). 이를 위해 OECD DAC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원조정보공유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이 IATI 표준이 출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국제원조의 장은 공여국, 수원국, 국제기구, 개발협력 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역사적, 지리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국제원조의 장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전 공여기관의 자발적, 비구속적 성격으로 출발한 IATI가 현재까지도 가입에 대해 별다른 강제성을 지니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분야 표준의 제도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특이하다. Brunsson의 논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표준은 국가, 회사, 국제기구 등의 공식적 조직 (formal organization)에서 제안, 생성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직들을 표준가(standardizer)로 일컬었다. IATI의 자발적 성격으로 IATI를 위와 같은 공식적 조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제안하고 형성한 행위자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의 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선진공여국이며, IATI의 출현을 형성한 이들의 정치적, 자원적 동기를 볼 때 IATI 창립멤버이자 선진공여기관들을 표준가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 IATI 표준의 확산 (2009-2013)

2018년 5월 현재 30개 이상의 공여국 정부기관을 포함, 775개의 개발관련 조직에서 IATI 표준을 도입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IATI 표준이 2008년 이래 적어도 양적으로 빠른 확산의 속도를 보여 왔음을 설명한다. 앞서 살펴보

있던 제도적 동형화는 국제개발협력의 장에서 다양한 조직이 표준을 도입하여 그것이 확산되는 과정을, 강제적, 규범적, 모방적 동형화로 이해하는데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원조정보공개 국제표준으로서 IATI의 확산 및 주요 제도적 동형화 과정에 대한 요약은 아래의 표1에 정리하였다.

CRS의 경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가입한 공여국의 경우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원조데이터 표준이며, CRS를 통한 원조정보공개는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Peer Reviews Report)의 핵심 사안이다. 이러한 연유로 OECD 선진공여국이 CRS를 이용하는 요인으로 강제적 동형화의 동인인 규칙과 제재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동형화의 결과로서가 아닌 OECD DAC 가입의 선결조건으로 CRS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외는 달리 IATI 표준의 경우, OECD DAC 가입의 유무 혹은 다른 어떠한 국제개발협력 방식의 선결조건으로 도입이 된 것이 아니므로 제도적 동형화로서 그 확산을 개념화 할 수 있고 다양한 강제적, 규범적, 모방적 동인을 찾을 수 있겠다.

먼저 IATI 표준의 확산에 있어 강제적 동형화 요인을 살펴보겠다.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와 같은 표준가들이 형성한 정보기술, 통신, 무역 등의 여타 국제표준에 비추어 봤을 때, 원조정보공개 표준은 강제적 동형화의 동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규칙, 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강제적 동형화의 동인을 국제정치학적 '권력'의 개념으로까지 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IATI 표준을 원조의 조건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공여국의 사례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다른 선진공여국들 보다 다소 늦은 2011년 마지막 4차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IATI에 가입을 한 후, 2014년 글로벌파트너십 출범까지 개발협력기관 및 기타 공여국, 수원국에 IATI 가입에 대한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은 강제적 동형화의 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Guide to the Monitoring Framework of the Global Partnership)에 제시된 지표 중 IATI 표준이 개발협력관련 정보공개 (지표4) 및 상호책임성 증대 (지표7)에 표준으로 직접제시 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 해준다 (GPEDC 2013).

둘째, 규범적 동형화 과정은 IATI의 확산의 가장 주요한 촉발 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 채택되었던 아크라행동계획에 처음으로



등장한 IATI에 대한 논의는 2011년 부산총회를 전후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IATI 표준이 공여기관의 성과관리를 돕고 대국민 책임성을 높이며, 수원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및 국가발전계획 수립의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득되었다. 특히 세계은행, OECD DAC과 함께 IATI 사무국은 원조투명성과 관련된 많은 정책, 기술적 자문을 수행해왔다. 여기에 2000년대 4차례 고위급회담을 거치며 원조투명성 분야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Publish What You Fund(PWYF), Open Budget Initiative, Global Initiative for Fiscal Transparency(GIFT) 등은 공여기관 및 수원국에 IATI 도입이 바람직한 정책결정으로 인식하게끔 IATI 표준에 대한 지식을 확산하고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Publish What You Fund는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를 개발하여 공여기관을 평가해 왔는데 그 지수 산출의 알고리즘에서 IATI 가입의 유무와 IATI 표준의 적용에 대한 평가항목이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지니고 있다 (Publish What You Fund 2016). 따라서 원조투명성지수는 단순한 순위를 넘어 지수를 매개로 투명성에 대한 지식을 계량화하고, 이를 통해 공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이미지의 인식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IATI 표준은 국제개발협력의 장에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해 왔다. 표준의 형성을 주도한 주요 표준가들의 영향력 강화와 국제개발협력의 장에서 지수와 표준이 작동하는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IATI 표준의 도입은 기계적인 원조정보보고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원조투명성 규범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IATI 표준은 공여기관이 표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장에서 원조투명성에 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였다 (DiMaggio and Powell 1983). 이러한 흐름들은 2015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3차 개발재원총회 이후 SDGs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발협력투명성을 위한 표준으로서의 IATI 역할을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것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United Nations 2015).

마지막으로, 모방적 동형화는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식으로 설명된다.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는 여타 조직의 사례를 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도적 동형화로 설명된다 (DiMaggio and Powell, 1983). 국제개발의 거버넌스는 2011년 마지막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전후로 큰 변화를 맞는다 (Mawdsley et al. 2014). 이후 새로운 개발협력의 패러다임과 다가오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종료 이후의 논의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시기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모니터

링에 대한 문제제기와 2011년 부산회담을 끝으로 원조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종료되면서, 원조정보 표준 및 거버넌스에 대한 혼란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원조정보관리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원조정보관리시스템(ai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AIMS)이 수원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5년 파리선언을 기점으로 확산되어 있었다 (Park 2017). 여기에 세계은행이 2010년 추진한 공공데이터이니셔티브(open data initiative)와 영국의 이어진 시도는 IATI 표준 도입에 큰 촉발점이 되었다. 이후 원조정책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이, 상대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했던 공여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등의 공여기관에서는 원조정보공개시스템의 개발에 IATI 표준을 도입하였고 이는 공여기관 간의 학습과 모방의 과정을 거쳐 확산되었다. 실제로 공여기관들의 원조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매우 유사한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IATI 역시 d-portal을 Development Initiative와 함께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IATI 표준 2.01과 2.02의 논의를 살펴보면, 초기부터 공공데이터, 기계판독가능한(machine-readable) 데이터를 표방했던 IATI 표준의 모방적 도입은 공여기관들의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다시 IATI를 수정 재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다 (Ministerie van Buitenlandse Zaken 2015).

<표 1> 원조정보표준으로서 IATI의 확산 및 제도적 동형화

동형화	동인	국제개발협력의 장	주요 마일스톤 및 영향
강제적	규칙, 법, 제재	CRS와 비교 시 미미한 IATI 사례에서의 표준의 강제적 동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미국의 IATI 가입이후 2014년 글로벌파트너십 출범까지 IATI 가입에 대한 의무화 추진에 대한 노력.</li> </ul>
규범적	의무, 자발적 책임	표준가(standardizer)로서 국제원조투명성 기구 및 개발협력 장의 영향력있는 OECD DAC, 세계은행, 시민사회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OECD 2003, 2005, 2008, 2011)을 통한 원조투명성 규범의 확산.</li> <li>2008 아크라행동계획 이후, 본격적인 국제 기구의 자문,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원조투명성을 위한 원조정보공개 표준에 대한 지식 및 IATI 성공이용사례 공유.</li> <li>2015년 아디스아바바 제3차 개발재원총회 이후 SDGs 보조 표준으로서의 IATI 역할 공유.</li> </ul>
모방적	학습, 경쟁, 불확실성	OECD DAC 공여기관, 남남삼각협력기구 공공데이터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부산원조총회 및 파리선언 모니터링의 종료 이후 2014년 글로벌파트너십 출범까지 원조정보표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li> <li>공여기관: 공여국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사용 확산에 따른 오픈원조플랫폼 확산. 이 과정에서 원조정보표준으로 IATI의 모방적 도입.</li> <li>수원기관: 남남삼각협력 증대로 인해 개발도상국간 성공사례 학습. 원조정보시스템의 확산.</li> </ul>

### 3. UN 지속발전가능목표, 표준의 재형성 및 과제 (2014-)

각국의 정상들이 참가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유엔지속발전가능목표(SDGs)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새롭게 대체하는 국제사회의 공통의 개발목표로 채택되었다. 이를 위해 SDGs의 이행을 위한 IATI 표준의 사용에 대한 논의가 그해 7월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United Nations 2015). 여기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Addis Ababa Agenda for Action)’의 127장에서 IATI 표준은 원조정보관련 공공데이터 표준으로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환기되었다

(United Nations 2015). 이는 추후 오픈거버먼트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와 같은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개발어젠다에서도 같은 취지로 재등장하며, IATI 표준의 확장가능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17개의 SDGs목표과 169개 세부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과 이행 계획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표준의 형성과정이 시작되었다. 2015년 OECD DAC 통계작업반의 보고서는 SDGs 이행을 위한 원조정보표준의 역할에 대한 가장 초기적인 논의를 담고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OECD DAC, 2015). SDGs 목표를 CRS 코드에 매핑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류 코드 및 정책표지(policy marker)의 재정비, 목적코드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12월 덴마크에서 열린 IATI 사무국의 회의에서도 SDGs 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IATI의 최우선 과제를 재확인하였다. 개별 개발협력활동이 각기 어떠한 세부 SDGs 이행을 위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SDGs 매핑 코드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표준의 재형성 과정을 거쳤다. 먼저 IATI 표준은 2015년말, IATI 표준 1.05에서 IATI 표준 2.01로 가장 큰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표준 2.01은 SDGs 반영을 위한 전반적인 개정이었으며, 2.02에서는 SDGs와 관련된 새로운 세 개의 코드, 코드7, 코드8, 코드 9가 각각 SDGs 목표, SDGs 타겟, SDGs 지표를 반영하여 2.02 IATI 표준에 포함되었다. IATI 표준은 그 비전에 있어 전면적 참여적, 공개적인 방식의 중요성을 주창했지만, 표준화의 과정과 형성과정은 전반적으로 매우 상의하달(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행정적 논의를 주도한 곳은 SDGs 지표에 대한 전문가그룹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이었다. 2016년 초 SDGs 통계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IATI가 SDGs 이행을 위한 원조정보 모니터링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IATI 기술위원회에 자문 및 조정의 권고를 전달하였다. 특히 전문가그룹 논의에서는 SDGs 목표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이행수단 강화)와 목표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을 강조하였는데, 두 가지 목표가 SDGs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의 거버넌스 측면에 해당되고 원조정보 메타데이터와 관련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IATI 표준이 실무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SDGs 이행 모니터링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IATI는 CRS가 기존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공공데이터 기반의, 질적정보를 포함한 표준의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공여기관이 기존의 통계담당 예산을 증액하거나 인력을 늘리지는 않아 통계담당관의 행정적인 부담만 키운 측면이 있다. 이는 데이터의 완성도와 질적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이다. 개발협력활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보고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IATI는 각 개발협력활동에 대해 기존의 CRS 목적코드를 기반으로 매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섹터별 복수의 매핑이 가능하지 않았던 CRS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매핑을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각각의 목적코드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같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CRS 목적코드에 변화를 주었다. OECD DAC에서도 '다목적 CRS 코드(multiple CRS code)'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대해 논의해왔고, 2015년 오타와에서 열린 IATI 기술위원회에서도 하나의 섹션으로 논의되었다. 이 같은 표준의 재형성 과정에서 첫째, IATI 형성을 주도, 결정, 보급하는 사무국과 각 공여기관 담당자 간, 둘째,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개발협력전문가와 공여기관 본부에서 IATI 보고를 담당하는 통계담당관 간의 소통 부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SDGs 설립 이후 IATI 표준에 대한 재형성 과정에 대해 그 범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해왔다. 정치적 수사로서는 SDGs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IATI 재형성과정의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IATI에 가입한 공여기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IATI 표준이 실제 SDGs 이행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거시적 수준에서 CRS 목적코드가 SDGs의 여러 세부목표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협력 현장의 수준에서는 여전히 간극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전히 CRS 목적코드, 정책표지와 SDGs 항목 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며 IATI 표준에 의한 정보가 SDGs 세부목표들에 필요한 지표들을 모두 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있다. IATI 정보공개표준은 13개 항목의 필수항목을 포함해서 IATI 2.1의 경우 39개인데, SDGs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은 선택항목의 정보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SDGs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표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의 표준화 역시 중요한데 국가간 측정방법과 지표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SDGs 이행에 대한 IATI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있어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VI.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표준과 국제개발의 접점에서 원조거버넌스를 위한 원조정보공개 국제표준 문제에 주목하였다. 공여국의 데이터 공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유엔지속발전목표의 설립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국제원조정보표준에 대해 살펴보고, 표준화의 사회적 형성과 국제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과 표준분야의 교집합에 놓여있는 여러 이론적, 정책적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표준, 특히 원조정보공개에 대한 국제표준은 그동안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소외된 연구 분야였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으로 인해, 특히 표준은 정보통신기술분야, 데이터 분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표준연구의 영역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과학기술, 정보통신, 무역, 환경 등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국제원조체계의 잦은 변화 (Kharas et al. 2011), 원조의 정치성,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협력의 구속성 (Alesina and Dollar 2000; Dunning 2004) 등으로 인해 표준의 복잡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수 년 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한 정보통신기술과개발(ICTD) 분야의 축적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그동안 뚜렷하지 않았던, 표준과 정보시스템, 개발협력 분야의 교집합적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SDGs는 목표 17에서 강조하듯이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표준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발협력의 실무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이 분야의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원조정보표준 및 그 표준화 과정의 복잡성과 사회적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과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국제원조정보의 표준화 과정은 국가, 국제기구, NGO, 정보통신 기술자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가 간, 국내적, 조직 내의 수준에서 각기 다르게 참여한다. 이 중, 원조거버넌스에 전통

적인 주요행위자이던 주요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원조투명성의 규범을 설파하고 표준화를 주도하는 표준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 하였다. 표준화의 과정은 기술적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출현, 확산, 제도화 되는 확인하였다 (Brunsson et al. 2012).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CRS 표준에서 과제로 파악되었던 공여국 중심의 논의 및 수원국의 제한적 참여의 문제가 비슷한 양태로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국제원조정보 표준의 국가적 적용에 있어 복잡성을 재확인해주며 표준화 과정에서 기술의 문제, 합리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 정치적 역학관계와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안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이와 같은 함의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점 및 보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ATI는 ‘아크라행동계획’을 채택했던 2008년 제3차 원조효과성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최근의 IATI ‘기술지원그룹(TAG)’ 미팅은 연구자가 직접 참석하며 원조표준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파악하고 논의된 안건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초기 IATI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특정 시기의 문서로만 한정될 수밖에 없어 분석의 시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SDGs 이후 IATI 표준 형성과정 역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형성된 표준의 실제적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미진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행위자, 특히 초기 IATI를 주도했던 주요 행위자와 SDGs 이후 표준 형성에 참여한 새로운 행위자들에 대한 비구조화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CRS와의 IATI의 제도논리(institutional logic)를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원조표준 형성의 총체적인 과정을 살펴 볼 수 있겠다 (Thornton and Ocasio 2005).

또한, 본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IATI 표준의 형성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을 다루었는데, 원조데이터공개표준이 어떻게 국가별로, 개발협력의 섹터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현장 중심의 비교사례분석 등, IATI 표준에 대한 도입 및 실질적 준용에 대해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IATI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 국가별 사례 분석 역시 가능하다. 특히 신흥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2014년 3월 제18차 국무총리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IATI 가입을 확정하고 2015년 12월 14번째 공여국으로 IATI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가입을 승인받았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투명성 제

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IATI 가입에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가입 이후 특히 SDGs의 설립이후 IATI가 원조데이터 공개 표준으로서, 한국정부의 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 SDGs에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는 불분명하다. 대국민 원조책임성 제고에 관한 측면을 보았을 때도, 국제이니셔티브의 가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후속 이행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논의한 원조데이터공개 표준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틀은 원조정보공개표준에 대한 개별국가의 이해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이익관계, 권력관계, 표준에 대한 도입 및 저항 등 다양한 논의에 대한 분석틀로 사용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국문 논문

- 김상배. 2002. “세계표준의 정치경제: 미·일 산업경쟁의 이론적 이해.” 『국가전략』 8(2), 111-130.
- 주한나, 이희진\*. 무역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 대상 표준 협력: EU 및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 주는 함의. 국가정책연구. (2014). 제28권 제3호: 27-52.

영문 논문

- Abbott, Kenneth W., and Duncan Snidal. 2001.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8(3): 345 - 70.
- Addison, Tony, Channing Arndt, and Finn Tarp. 2010. “The Triple Crisis and the Global Aid Architecture.” *African Development Review* 23(4): 461 - 78.
- Alesina, Alberto, and David Dollar.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33 - 63.
- Avgerou, Chrisanthi. 2000. “IT and Organizational Change: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Information Technology and People* 13(4): 234 - 62.
- . 2001. “The Significance of Context in Information Systems and Organizational Change.” *Information Systems Journal* (11): 43 - 63.
- . 2002. *Information Systems and Global Divers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kkers, Rudi, Bart Verspagen, and Jan Smits. 200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The Case of GSM.” *Telecommunications Policy* 26(3 - 4): 171 - 88.
- Benders, Jos, Ronald Batenburg, and Heico Van Der Blonk. 2006. “Sticking to Standards; Technical and Other Isomorphic Pressures in Deploying ERP-Systems.” *Information and Management* 43(2): 194 - 203.
- Blind, Knut. 2011. “An Economic Analysis of Standards Competition: The Example of the ISO ODF and OOXML Standards.” *Telecommunications Policy* 35(4): 373 - 81.
- Blind, Knut, and Andre Jungmittag. 2005. “Trade and the Impact of Innovations and Standards: The Case of Germany and the UK.” *Applied Economics* 37(12): 1385 - 98.

- Botzem, Sebastian, and Leonhard Dobusch. 2012. "Standardization Cycles: A Process Perspective on the Formation and Diffusion of Trans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Studies* 33(5 - 6): 737 - 62.
- Braa, Jørn et al. 2007. "Developing Health Informa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Flexible Standards Strategy." *Mis Quarterly* 31(2): 381 - 402.
- Braa, Jørn, and Calle Hedberg. 2001. "Developing District-Based Health Care Information Systems: The South African Experience." *The Information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18(2): 113 - 27.
- Brandi, Clara A. 2017. "Sustainability Standard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Synergies and Trade-Offs of Transnational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25(1): 25 - 34.
- Brunsson, Nils, Andreas Rasche, and David Seidl. 2012. "The Dynamics of Standardization: Three Perspectives on Standards in Organization Studies." *Organization Studies* 33(JUNE): 613 - 32.
- Currie, Wendy L. 2012.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hange: The National Programme for IT."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27(3): 236 - 48.
- Davis, F D. 1985. "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Empirically Testing New End-User Information Systems: Theory and Results." *Management Ph.D.*: 291.
- DiMaggio, Paul, and Walter W.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 - 60.
- Dunning, Thad. 2004. "Conditioning the Effects of Aid: Cold War Politics, Donor Credibility, and Democracy in Afr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2): 409 - 23.
- Egyedi, T.M. 1996. *Shaping Standardization: A Study of Standards Process, and Standards Policies in the Field of Telematic Services*. Delft: Delft University.
- Ernst, Dieter, Heejin Lee, and Jooyoung Kwak. 2014. "Standards, Innovation, and Latecomer Economic Development: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Challenges." *Telecommunications Policy* 38(10): 853 - 62.
- Eyben, Rosalind, and Laura Savage. 2013. "Emerging and Submerging Powers: Imagined Geographies in the New Development Partnership at the Busan Fourth High Level Forum."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9(4): 457 - 69.
- Fereday, Jennifer, and Eimear Muir-Cochrane. 2006. "Demonstrating Rigor Using

- Thematic Analysis: A Hybrid Approach of Inductive and Deductive Coding and Them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5(1): 80 - 92.
- Fountain, Jane E. 2001. *Building the Virtual Stat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Chang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Gao, Ping. 2007. "Counter-Networks in Standardization: A Perspective of Developing Countries." *Information Systems Journal* 17(4): 391 - 420.
- Garud, Raghu, Sanjay Jain, and Arun Kumaraswamy. 2002. "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 in the Sponsorship of Common Technological Standards: The Case of Sun Microsystems and Java."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1): 196 - 214.
- Ghosh, Anirban, and Homi Kharas. 2011. *The Money Trail : Ranking Donor Transparency in Foreign Aid*.
- GPEDC. 2013. *Guide to the Monitoring Framework of the Global Partnership*.
- Graham, Ian, Graham Spinardi, Robin Williams, and Juliet Webster. 1995. "The Dynamics of EDI Standards Development."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7(1): 3 - 20.
- Heeks, Richard. 2010. "D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Contribute to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640(22): 625 - 40.
- IATI. 2013. *Complementary Roles for the OECD-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 . 2017. "IATI Annual Report 2016."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007. *Aid Architecture: An Overview of the Main Trends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lows*.
- Jacucci, Edoardo, Vincent Shaw, and Jørn Braa. 2006. "Standardization of Health Information Systems in South Africa: The Challenge of Local Sustainability." *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12(3): 225 - 39.
- Jinsang, Hwang. 2005. "The Social Shaping of ICTs Standards: A Case of National Character Set Standards Controversy in Korea." University of Edinburgh.
- Jørgensen, M. S., Ulrik Jørgensen, and Christian Clausen. 2009. "The Social Shaping Approach to Technology Foresight." *Futures* 41(2): 80 - 86.
- Judge, William, Shaomin Li, and Robert Pinsker. 2010. "National Adop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rporate*

- Governance 18(3): 161 - 74.
- Kano, Sadahiko. 2000. "Technical Innovations, Standardization and Regional Comparison - a Case Study in Mobile 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Policy* 24(4): 305 - 21.
- Kharas, Homi. 2011. "Transparency: Changing the Accountability, Engagement, and Effectiveness of Aid." In *Catalyzing Development: A New Vision for Ai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Kharas, Homi, Koji Makino, and Woojin Jung. 2011. "Overview: An Agenda for the Busan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Catalyzing Development: A New Vision for Aid*, eds. Homi; Kharas, Koji; Makino, and Woojin Jung.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 - 37.
- Kvale, S. & Brinkmann, S. 2009. "Conducting an Interview." *InterViews: Learning the craft of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123 - 40.
- Lee, Heejin, G. Harindranath, Sangjo Oh, and Dong Jae Kim. 2015. "Provision of Mobile Banking Services from an Actor-Network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Convergence and Standardiz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90(PB): 551 - 61.
- MacKenzie, D., and J Wajcman. 1999.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Manning, Richard. 2006. "Will 'emerging Donors' Change the Fa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Policy Review* 24(4): 371 - 85.
- Martens, Jens. 2001. *Rethinking ODA: Towards a Renewal of ODA*.
- Mavrotas, George. 2005. "Aid Heterogeneity: Looking at Aid Effectiveness from a Different Angl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7(8): 1019 - 36.
- Mawdsley, Emma, Laura Savage, and Sung Mi Kim. 2014. "A 'Post-Aid World'? Paradigm Shift in Foreign Aid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t the 2011 Busan High Level Forum." *Geographical Journal* 180(1): 27 - 38.
- Ministerie van Buitenlandse Zaken. 2015. "How to Use the IATI Standard."
- Moon, S., and S. Williamson. 2010. *Greater Aid Transparency: Crucial for Aid Effectiveness*. London.
- OECD. 2006. *OECD 2006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Paris.
- . 2008a. *OECD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Paris.
- . 2008b.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an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Paris.

- . 2011. OECD 2011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Paris.
- . 2012. The Euro Zone Crisis and Its Impact on ODA. Paris.
- OECD 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2015. Comprehensive Review of Purpose Codes and Policy Markers in light of the SDGs and Post-2015 Agenda. Paris.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2012. Enabling Open Development: An Overview Fo Initiatives to Improve Information. Washington DC.
- Orlikowski, Wanda J. 1992. "The Duality of Technology: Rethinking the Concept of Technology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 Science* 3(3): 398 - 427.
- Park, Kyung-Ryul. 2017. "An Analysis of Ai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IMS) in Developing Countries: Explaining the Last Two Decades." In *HICSS '16 Proceedings of the 50th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Hawaii.
- Pistor, K. 2002. "The Standardization of Law and Its Effect on Developing Economie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50(1): 97 - 130.
- Publish What You Fund. 2016. Aid Transparency Assessment. London.
- Scott, W. Richard. 1994. "Conceptualizing Organizational Fields. Linking Organizations and Societal Systems." In *Systemrationalität Und Partialinteresse*, , 203 - 21.
- Singer, Benjamin D. 1996. "Towards a Sociology of Standards: Problems of a Critical Society."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Cahiers canadiens de ...* 21(2): 203 - 21.
- Theodosiou, Marios, and Leonidas C. Leonidou. 2003. "Standardization versus Adaptation of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An Integrative Assessment of the Empirical Research."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2(2): 141 - 71.
- Thornton, Patricia H, and William Ocasio. 1999. "Institutional Logics and the Historical Contingency of Power in Organizations: Executive Succession in the Higher Education Publishing Industry, 1958 - 199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3): 801 - 43.
- . 2005. *The Sage Handbook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Logics*.
- Tierney, Michael J. et al. 2011. "More Dollars than Sense: Refining Our Knowledge of Development Finance Using AidData." *World Development* 39(11): 1891 - 1906.

- Timmermans, Stefan, and Marc Berg. 2003. *The Gold Standard: The Challenge Of Evidence-Based Medicine*. ed.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 Timmermans, Stefan, and Steven Epstein. 2010. "A World of Standards but Not a Standard World: Toward a Sociology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1): 69 - 89.
- United Nations. 2015.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Report* 53(9): 1689 - 99.
- Walsham, Geoff. 2008. "ICTs and Global Working in a Non-Flat World." In *IFIP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 13 - 25.
- Walsham, Geoffrey. 2006. "Doing Interpretive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5(320 - 330).
- Weitzel, Tim, Daniel Beimborn, and Wolfgang Koenig. 2006. "A Unified Economic Model of Standard Diffusion: The Impact of Standardization Cost, Network Effects, and Network Topology." *Mis Quarterly* 30(August): 489 - 514.
- Williams, Robin, and David Edge. 1996.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Research Policy*: 865 - 99.
- Yin, Robert K. 2009. *5 Essential guide to qualitative methods in organizational research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 Zoo, Hanah, Henk J. de Vries, and Heejin Lee. 2017. "Interplay of Innovation and Standardization: Exploring the Relevance in Developing Countri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8: 334 - 48.